

크루즈 활성화 힘난한 항해 여수시 묘수찾기 깊은 고심



올 들어 처음 여수항을 찾았던 일본 크루즈 오션 드림호. 당시 여수를 찾은 일본 관광객 623명은 올해 여수항에 입항한 유일한 크루즈 관광객들로 초라한 전남 크루즈 산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크루즈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여수의 구상이 지지부진하다. 크루즈를 타고 여수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광객을 끌어올만한 대형쇼핑센터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도 미흡하기만하다.

해양산업의 블루칩이라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묘안을 찾아야 하는 여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열심하는 하는데...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올 들어 600여명에 불과한 형편이다.

크루즈 관광객은 메르스 사태(2015년)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2014년만해도 5만 4000명에 달했던 관광객은 2015년 1000여명으로 줄더니 지난해 4500여명으로 반짝 증가한 뒤 올 들어서는 1000명도 못되는 관광객을 유치한 게 전부다. 여수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2012년 1만6000명 ▲2013년 2만3000명 ▲2014년 5만4000명 등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루즈 중심지’라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여수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전남도·순천·광양과 함께 일본 도쿄를 찾아 포트세일(Port Sales)에 나서는가 하면, 일본내 크루즈 선사를 초청한 세일즈 콜(Sales Call)행사를 개최하는 등 크루즈 공동마케팅을 추진 중이다.

여수를 알리기 위해 중국북경지역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 것을 비롯, 외국 크루즈선사를 위한 팸투어, 일본 SNS 기자단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는 한편, 세계적인 선사·여행사들이 즐겨보는 크루즈 전문 잡지에 지면 광고도 추진 중이다. 크루

세일즈 콜·팸투어 홍보에도 관광객 유인할 기반시설 미흡 올해 방문객 600여명에 불과 특화된 콘텐츠 개발 등 시급

즈를 유지하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1000만원)를 걷고 기항장려금 지원, 도선료 할인 등 마케팅도 펼치고 있다.

앞서, 여수항은 기존 8만t급 크루즈 부두를 15만t급 대형 크루즈 선의 입항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도 마무리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여수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고작 지난달 일본 관광객 623명이 여수를 찾았다가 돌아간 게 전부다. 한국 크루즈 관광객 594명을 추가로 태우고 러시아로 출항, 모항(배의 출발지)의 역할을 했다 는 점 외에는 초라하다.

하지만 메르스 여파에 중국발 사드 보복, 아시아 경기침체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다. 여수박람회 이후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정착 눈에 띄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포기하지...‘황금알을 낳는 거위’. 크루즈 산업에 대한 관광업계 평가다. 소비 성향이 강한 부유층 관광객이 선호하는 점에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해 국내 크루

즈 여객 지출규모를 1억1800만달러(1298억원)로 추산했다. 8만t급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할 경우 얻는 부가가치도 2억7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국내에 들어온 크루즈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당시 경제유발효과도 7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관광 콘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크루즈선 관광객들의 경우 1인당 지출 비용이 113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벌어졌다.

지난 2014년 광양항에 입항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1만 6000명이 5일동안 여수 오동도와 순천 낙안읍성, 곡성 기차마을 등 여수·순천·곡성 등 전남지역에서 쓰고 간 돈만 9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중국 기업보상관광단 등 3850명을 태운 초대형 크루즈선이 여수항에 입항, 15시간 이상 머무르는 동안 특산품인 방풍초콜렛과 두부과자, 홍삼절편의 60%가 넘는 상품 소진율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서둘러야...놓칠 수 없는 만큼 서둘러 가시적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순신 유적지 등 여수만의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 한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숙영 경희대 교수는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까지 가능한 여수 엑스포항을 보유한 여수는 국내 대표 크루즈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이 있다”며 “최근 동북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제주·여수·부산·인천을 잇는 다양한 크루즈 코스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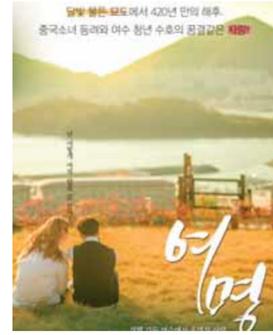
여수시 제작 관광 웹드라마 ‘여명’ 국제 웹영화제 특별상

여수시가 제작한 두번째 관광 웹드라마 ‘여명(麗明·사진)’이 국제 웹영화제 특별상(Special prize winner)을 수상했다.

앞서 여수시가 지난 2015년 처음 제작한 첫 웹드라마 ‘신지개’가 제 2회 국제영화제 ‘K웹페스트’에서 베스트 프로덕션 디자인상을 수상한 이후 두 번째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웹드라마 ‘여명’은 ‘서울웹페스트 2017’(국제웹영화제)에서 베스트드라마·뮤직, 미술상, 각본상 등 4개 분야 후보에 올라 지난 18일 특별상(Special prize winner)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웹페스트는 웹시리즈 전문 국제 영화제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원에서 열렸다. 출품한 124작품 중 5개 작



품이 선정됐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품한 작품은 여수시가 출품한 ‘여명’이 유일하다.

‘여명’은 여수의 명소라는 의미로, 여수에서 활약한 명나라 장수라는 의

미도 담고 있다.

‘여명’은 420년 전 노랑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한 명나라 등자룡 장군의 후손(등려)이 여수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와 여수 청년(수호)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오동도, 해상케이블카, 금오도 비렁길, 웅천 해양레포츠(요트) 등 여수시 주요관광지 18곳이 드라마에 담겼고 총 5화 전체 30분정도 분량으로 제작됐다.

특히 ‘여명’은 이번 국제 웹영화제 개막작 상영 후 캄보디아 정규방송(채널 5)에 상영을 약속 받았으며 브라질 리우 웹페스트에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김광중 여수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산단 전경

잇단 사고 여수산단 특별 안전점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최근 잇따르는 안전사고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으로, 여수시의 특별안전점검은 지난 2003년 10월 호남 석유화학 폭발사고 이후 14년 만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여수산단에서

이달에만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 일정 등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점검 결과, 안전 기준에 미흡한 공장 및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등 시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제정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리기 조례’ 시행을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도 구성된

다.

여수시는 지난 6월 30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모집 공고를 냈으며 최근 위원 구성 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전 관련 기관들과 함께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본격 착수

심의회 구성 연말까지 마무리

여수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여수시는 정규직 전환심의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8월 현재 여수시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38개 부서에 338명이다.

여수시는 최종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4명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범위, 전환 방식, 채용방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전환심의회에서 전환방식 등을 결정하면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농막형 1,350 ~ 2,350 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www.housecomma.com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